

4년 넘게 '제자리'...광주 군 공항 이전 또 다시 표류?

국조실 '집중관리 갈등 과제' 불구 답보...민형배 국감서 지적

국토부, '연계이전 추진' 발표...시·도민 갈등의 골만 더 커져

수년째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갈등 과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협의제도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면서 시·도민 간 갈등의 골은 더

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부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집중 관리 갈등 과제 선정 건수 및 처리 현황' 자료(2018-2021)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31일 기준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집중 관리 갈등 과제는 모두 27건으로 이중 26건은 미해결

과제다.

'집중 관리 갈등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총리령)'에 따라 선정·관리하는 것이다.

집중 관리 갈등 과제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포함돼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8년 지역 주민 간 이견 등을 이유로 갈등 과제로 선정했지만 4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주 무안공항

통합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한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도민 간 갈등의 골만 커졌다.

또 역대 국무총리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왔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장과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지난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호남권 유일한 갈등 과제인데도, 수년 넘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 정부와 정치권의 사랑받림 약속으로 전락한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군공항 등 장기간 갈등 과제를 조정하지 못하면 해결 의지마저 의심받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갈등과제 조정 효력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 달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거부 등 조정 과정에 비협조적인 중앙행정기관 패널리 부어 등 해결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지만, 수년째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2021년 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도 조기에 이전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광주시는 민간 공항 이전을 미루기로 해 전남도의 반발을 샀다. /오승지기자

이재명 대선 직행 '9부 능선'

2차 슈퍼위크도 과반 득표 '압승'...누적 득표율 54.9%

이재명 지사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득표로 압승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지사는 이날까지 진행된 9번의 지역 순회 경선과 1·2차 일반 선거인단 투표 중 광주·전남을 제외한 10곳에서 과반 승리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대세론'을 다지며, 사실상 대선직행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8.1%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동안 순회 경선에서의 최고 득표율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33.4%로 2위였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8%), 박용진 의원(2.5%) 순이었다.

이 지사는 이날 함께 발표된 인천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득표율 53.8%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35.4%, 추진 장관이 9.2%, 박 의원이 1.4%를 득표했다.

그간의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는 54만5천537표(54.9%)로 과반 선두를 굳게 지켰다.

경선 일정이 마지막 1주일만을 남긴 가운데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과반을 유지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6천여명에 현재까지 투표율 65.9%를 반영하면 전체 투표인 수는 약 14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로서는 과반 '매직 넘버'인 71만표까지 약 17만표를 남긴 셈이다.

마지막 남은 순회경선 일정인 9일 경기(16만명), 10일 서울(14만명) 지역 선거인단과 3차 선거인단(30만명) 규모를 고려하면 무난하게 과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수기자



분홍빛 가을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4일 장성군 장성읍 황룡강변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익새와 어우러진 '핑크몰리'속에서 가을빛 낭만을 즐기고 있다. /김예리기자

'개천절 연휴' 코로나19 확산 분수령되나

광주·전남 나흘간 134명 확진...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추석·개천절 연휴에 광주·전남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자릿 수를 기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을 2주간 연장하면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연휴에 이동량마저 늘면서 이번 추가 재확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간 총 134명(광주 71명·전남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일 45명(광주 25명·전남 20명), 2일 42명(광주 22명·전남 20명), 3일 26명(광주·전남 각 13명), 이날 오후 6시 기준 21명(광주 11명·전남 10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확진자를 비롯 산발적 감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동일 생활권인 광주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27%를 차지했다. 유증상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일부 확진자 등이 최근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확진자 수는 명절 연휴기간 두자릿 수로 올라섰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추석 이후 확산세와 10월 행락철 연휴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수용성, 위드코로나 준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풀이된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집중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단 미집중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

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10월 행락철과 있던 연휴에 따른 이동량 증가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동·만남을 자제하고, 타지역 거주자와 부득이한 만남 후 복귀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이재명 대선경선후보가 지난 3일 인천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day	
광주 자치경찰 전면 시행 100일	5면
반도체 부품난 자동차 판매 감소	12면
손흥민·황희찬, 동반 베스트 11	16면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업내용 주민 참여 환경·경관 등 마을가꾸기 사업, 22개 시·군 1,000개 마을 선정

문의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061-286-357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으뜸마을 담당부서

사업지원 마을당 매년 300만원씩 3년간 900만원 지원